

## 본당 소식

### ♣ 말씀 KEY WORD

3월 29일	주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성지(가지)를 구유나 십자가 옆에 모시고 기도하기
3월 30일	월	성주간 월요일	성전 정확의 의미를 되새기며 내 마음 청소하기
3월 31일	화	성주간 화요일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 묵상하며 성실 다짐하기
4월 1일	수	성주간 수요일	주님의 수난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깊이 묵상하기
4월 2일	목	성 목요일	성체성사 제정의 밤, '사랑의 새 계명' 실천하기
4월 3일	금	성 금요일	단식과 금욕, 주님 수난 예식 참여 및 침묵 유지
4월 4일	토	성 토요일	부활의 희망을 품고 주님의 무덤가에서 고요히 기다리기

### ♣ 사순시기 판공성사

- 29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전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 ♣ 사순시기 '신앙의 신비여'

◎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 ♣ 2026년 교무금 안내

- 올해 교무금을 아직 책정하지 못하신 신자분들께서는 부활 대축일(4월5일) 안으로 책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공동체를 위한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 파스카 성삼일 전례 안내

- 주님 만찬 성목요일 : 04월 02일, 저녁 8시
- 주님 수난 성금요일 수난 예식 : 03일, 저녁 8시
-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 04일, 저녁 8시
- 성 목요일 이웃돕기 성금, 성 금요일 십자가 경배 예물, 부활 성야 및 대축일 미사에 봉헌 있습니다.

###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194.50€ • 교무금 370.00€

### 전례 봉사

이번 주일(3월 29일)	주님 만찬 성 목요일 (4월 2일)
1독서: 김성진 다니엘	1독서 : 강한 프란치스코
2독서: 이수정 다니엘라	2독서 : 김산영 올리아
복 사: 안태오 마태오 / 정이한 다윗	복 사: 정명용 미카엘/정상현 안토니오 김사빈 엠마 / 정아인 레나

##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2026년 3월 29일

(홍)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미사 전례

### 화답송



### 복음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복음(마태오 27,11-54)

○ 해설자 + 예수님 ● 다른 한 사람 ▣ 다른 몇몇 사람 ◎ 군중  
그때에 11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총독이 물었다.

●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오?”

○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12 ○ 그러나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당신을 고소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13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 “저들이 갖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14 ○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15 축제 때마다 군중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 주는 관례가 있었다. 16 마침 그때에 예수 바라빠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17 사람들이 모여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 “내가 누구를 풀어 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빠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18 ○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19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 “당신은 그 의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20 ○ 그동안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구슬려 바라빠를 풀어 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은 없애 버리자고 하였다. 21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 “두 사람 가운데에서 누구를 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오?”

○ 군중이 대답하였다.

◎ “바라빠요.”

22 ○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 군중이 모두 외쳤다.

◎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23 ○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24 ○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오.”

25 ○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오.”

26 ○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빠를 풀어 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27 그때에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데

리고 가서 그분 둘레에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28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29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며 조롱하였다.

▣ “유대인들의 임금님, 만세!”

30 ○ 군사들은 또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31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겹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32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

였다. 33 이윽고 골고타 곧 ‘해골 터’라는 곳에 이르렀다. 34 그들이 쓸개즙을 섞은 포도

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35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겹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36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37 그들은 또 그분의 머리 위에 죄명을 붙여 놓았다.

거기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 예수다.’라고 쓰여 있었다.

38 그때에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혔다.

39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40 이렇게 말하였다.

▣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 보아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41 ○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42 ▣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43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 내 보시라  
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44 ○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45 낮 열두 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46 오후 세 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 이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

47 그곳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 “이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48 ○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신 포도주에 듬뿍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다. 49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하였다.

▣ “가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 주나 봅시다.”

50 ○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고 잠깐 묵상한다.>

51 ○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52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53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54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빛이신 주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도와주시어, 십자가의 수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 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2.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이 땅의 모든 공직자를 이끌어 주시어, 국민 가까이 머물며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명을 다하며 공동선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소서.

3. 온갖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자하신 주님, 저마다 가진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굽어살피시어,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희망과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4.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자이신 주님,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살피 주시어, 공동체 안에서 겪는 어려움과 갈등을 잘 해결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화해의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